

새만금 'VR 테마파크·리조트' 내년 5월 착공

세계잼버리대회 일정 맞춰 2023년 완공...관광명소화 사업 본격화 가족리조트·컨벤션센터 등도 추가 조성...지역경제 파급 효과 클듯

새만금 테마파크, 리조트, 컨벤션센터 등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명소화 용지 개발 사업이 이르면 내년 5월 착공된다고 13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사업 시행자가 협약에 맞춰 최근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납입해 내년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시행자인 새만금브이알에이알리조트는 연말 안에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세계잼버리대회 일정에 맞춰 1단계로 2023년까지 가상현실(VR) 테마파크와 고급 리조트를 건립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가족 리조트와 컨벤션센터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

개발 부지는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작 지점인 부

안군 변산면의 새만금홍보관 일대 8만여㎡다. 총 사업비는 813억원이다. 개발청은 명소화사업 용지 개발사업으로 884명의 고용과 1614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새만금 VR·AR 리조트 김성광 대표는 "올해 안에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께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건축 공사에 들어가겠다"면서 "2023년 5-6월에는 1단계 사업을 마쳐 세계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이 사업은 새만금 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며 "자치단체들과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새만금 관광명소화 사업 조감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익산시, 전북 첫 전액 지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카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전북지역에서는 익산시가 처음이다.

익산시는 자체 예산 9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초과분 전액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익산시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6500여명에게 최대 50만원까지 1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해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8% 중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된 금액은 50만원 이상을 초과한 수수료 전액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전체 결제 서비스의 70% 정도가 카드 결제로 이뤄지고 1만원 이하 소액결제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큰 카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면 영입이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고홀딩스 등 3개 식품기업 고창군에 890억원 투자협약



고창군은 지난 12일 식품가공기업 3곳과 89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고창군 제공>

㈜고고홀딩스와 ㈜태송, ㈜온록 등 3개 식품가공 기업이 고창지역 투자를 본격화한다.

고창군은 지난 12일 이들 식품기업과 89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고창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확정된 ㈜고고홀딩스는 5개 제조업체가 업무제휴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업체는 300억원을 투자해 10만8768㎡의 부지를 활용해 건조밥, 김밥 등 곡물가공 식품을 비롯한 식품첨가수, 홍삼·동충하초,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액상, 분말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업체는 31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태송과 ㈜온록은 부안면 용산리에 위치한 북분자농공단지에 투자를 확정했다. 태송은 2018년 북분자농공단지에 입주한 엄지식품의 자회사다.

이 업체는 340억원을 투자, 2만628.4㎡의 부지를 활용해 투자해 볶음밥, 영양밥 등 곡물가공식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온록은 지역 향토기업으로 참바다염어조합법인의 자회사다.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북분자농공단지 내 공장을 신속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분양받아 250억원(부지 9586.7㎡, 고용예정 50명)을 투자해 볶음밥, 핫도그, 갈비탕 등 가정간편식을 생산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풍부한 식품자원의 주산지인 고창의 농수축산물과 연계할 수 있는 농생명 식품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관장은 일지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며 "행정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관 쓰고 비녀 꽂고...이젠 어른"

정읍예명문화원, 태인고 학생들 성년의식·다례행사

정읍예명문화원이 지난 12일 태인고등학교에서 전통 관례인 성년의식과 다례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 성년례는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예명문화원이 주관했다.

성년례는 예비 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성년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일깨우고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

성년례는 우리나라 4대 전통생활 의식인 관혼상제 가운데 첫 번째 통과례이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고 성인으로서 자격을 인정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격적인 역할과 책무를 부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날 태인고 학생들은 성년선언을 하고 남학생들은 관(冠)을, 여학생에게는 비녀를 꽂아 어른과 동일한 복식을 갖추는 의식 절차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회인으로서 어른의 도리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축하주를 대신해 정읍자생차를 함께 마시는 다례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정읍시 관계자는 "예비 성인으로서 학생들이 전통 예법을 바로 알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배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성숙한 성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예명문화원이 지난 12일 태인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통 관례인 성년의식과 다례체험을 진행했다. <정읍시 제공>

암 발병 부실감독 지적에 익산시 "책임 통감...수용"

잠정마을 치유·사태 해결 총력키로

익산시가 지난 12일 잠정마을 암 집단 발생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6일 만에 나온 사과 표명이다.

익산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폐기물 재활용 변경 신고를 부적절하게 수리했고 점검도 소홀히 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와 지도·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련 공무원 1명을 보직 해임하고 2명은 징계 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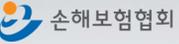
익산시는 "다만, 비료공장에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위탁 처리해 근본 원인을 제공한 KT&G와 (문제의 한 원인이 된) 농림부 및 환경부의 비료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지적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일 '익산시가 2009년 사용이 금지된 연초박 등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쓰겠다는 비료공장의 신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리해 발암물질 발생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잠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를 했다.

잠정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생긴 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고, 수십 명이 투병 중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